

2019년 법무사 헌법 출제분석 및 대책

[권순현 헌법교수]

안녕하십니까? 서울법학원 헌법교수인 권순현입니다. 2019년 법무사 시험을 보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험 이후에 찾아오는 수험생으로서 불안한 마음은 누구나 비슷할 것입니다. 이미 가답안을 중심으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예상 합격커트라인에 관심이 많으리라 봅니다. 이에 도움을 주기위해 헌법과목의 출제분석 및 대책을 쓰고자 합니다.

(출제분석)

1. 출제범위

이번 2019년 법무사 기출문제는 **헌법총론**에서는 조례에서 1문, 합헌적 법률해석에서 1문, 헌정사에서 1문으로, 총 **3문제**가 출제되었다.

기본권론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 1문, 집회의 자유 1문, 행복추구권 1문, 언론출판의 자유 1문, 보안처분 1문, 생명권 1문, 직업의 자유 1문, 혼인과 가족의 권리 1문으로 총 **8문제**가 출제되었다.

통치구조론에서는 국회 2문, 국무총리 1문, 대통령 1문, 대법원 1문, 위헌법률심판 1문, 헌법소원 1문으로 총 **7문제**가 출제되었다. 어느 부분에 포함하기 어려운 **종합문제**가 **2문제**가 출제되었다.

2. 출제의 특징

전년도에 비하여 올해 **출제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동안에 난이도를 높였던 박스 문제가 1문제만 출제를 하여 감소한 점입니다.

둘째, 헌법조문을 직접 물어보는 것이 4문제나 되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부속 법률은 국회법, 법원조직법이 반영되었고 나머지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를 변형하여 다시 출제한 문제가 많습니다.

넷째, 낙태죄 판례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판례 등 최근 헌재 결정을 많이 반영한 점입니다.

2. 조문(헌법 및 부속법률)

헌법조문은 종합문제로서 1문, 규칙제정권과 관련되어 1문,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어 1문, 법원 관련 1문이 출제가 되어 헌법조문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제된 부속 법률로는 국회법, 법원조직법을 들 수 있습니다. 부속 법률의 비중은 줄어들었습니다.

3. 판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 유형은 판례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의 낙태죄 판례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판례나 보안처분 판례 등 최근 판례

등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판례 문제를 대비하여 기본서 외에 판례서(예를 들면 제 책인 '헌법판례선'), 제공된 최신판례자료 등을 통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출제된 최근 판례로서, 6월의 최종정리 판례특강에서 공부한 내용이 실제로 2문제(낙태죄 판례,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판례)가 출제되었습니다.

4. 작년대비 난이도

2018년 시험에 비하여 2019년 시험이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동일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올해는 박스형이 1문 출제되었으나, 헌법 판례의 수준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대 책)

대책으로는 헌법과목에 시간을 적절히 확보하여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판례의 결론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주요 판례는 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는 기본강의를 통한 헌법조문, 내용, 부속 법률을 반복적으로 숙지하고, 그 이후에는 최근판례를 포함하여 판례를 깊이 있고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것은 1차 시험 이후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법무사시험의 최종합격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서울법학원에서 공부한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2019. 6. 25. 권 순 현.